강원도정 소식

적기 구제역 예방접종 당부

강원도, 미실시 농가 강력한 행정처분

강원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100% 예방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지속하고 미실시 농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공급되고 있는 3가 혼합백신(O+A+Asia1 type)을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철저히 접종할 것을 축산농가에 주문했다.

농가 이동이 빈번한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읍 · 면사무소 및 주요 도로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방송, SMS발송,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 및 농장 확인검사를 지속 추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현행 예방접종 확인 방식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접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교육 · 홍보를 실시하는 '예방접종 실명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백신접종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는 예방접종반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12월 15일까지

3억6천만원 들여 해파랑길 조성

고성군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360억1,249만7천원 의결

51억2천여만원 증액

해파랑길 조성사업비 3억6천만원 등이 포함된 고성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360억1,249만7천원이 확정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기정예산 2,308억9,016만원보다 51억2,233만원(2.22%)이 증액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4,207만원이 증가한 2,183억4,559만원, 특별회계가 13억8,025만원 증가한 176억6,689만원이다.

고성군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1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정리, 불용 · 절감예산을 반영해 추가적인 필수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운용에 목표를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해파랑길 조성 3억6,000만원, 한우령 한우클러스터 사업 1억9,500만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 1억원, 기능성쌀 저온저장고 설치 1억6,000만원 등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하반기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반영해 조금이나마 경제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계획적인 투자재원 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민주·민노 '공동 지방정부' 파기

민노당 도당 5일 파기 선언에, 민주당 도당 20일 '수용' 밝혀

인제군수 재선거 마찰 원인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 지난 5일 민주당과의 강원도 지방정부 파기를 선언한데 이어, 민주당 강원도당이 20일 "파기 선언을 최종 수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한지붕 두가족' 형태로 운영되던 강원도정이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되게 됐다.

민노당 강원도당은 지난 5일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파기와 공동지방정부 파기를 공식 선언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 8개 전 지역구에서 어떠한 후보 양보나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배연길 도당위원장은 "이광재, 최문순 도지사의 연이은 민주당 도정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인사 1, 2명 등용을 공동 지방정부의 모든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의식은 물론 비서실의 불통과 정무기능 마비 등이 결국 공동지방정부 파기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박승흡 민노당 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날 민주당과의 공동 지방정부 파기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연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통탄스럽다"며 10 · 26 인제군수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었다.

이후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 도당은 20일 '참을 인자 세 번을 썼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민노당 도당이 발표한 공동 지방정부 파기선언을 최종 수용하며, 파기선언에 대한 민노당 도당의 실체적 행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단일화 과정의 일방적 요구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근거없는 무리한 발언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려는 강원도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후 민노당 도당 현 지도부의 그 어떤 행위에도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현 지도부의 이런 독선적 · 기만적 행태가 존재한다면 민주당이 먼저 거부 할 것"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제13회 고성명태축제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수협활어회마트
팔광호횟집
대표 황동수
고성군 현내면 거진읍 수협청사내(內)
☎681-9904 / 010-6450-4739

깔끔코다리 · 참가자미 · 세꼬시회
한양식품
대표 이광호
고성군 거진읍 거진11리 338-4
☎681-0789 / 010-8367-2166